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2. 08 | Vol. 219호

#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임진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지난 7월 14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9월 1일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께서는 모두 수회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삼재 8월 4일(음. 6월 17일)  
사재 8월 11일(음. 6월 24일)  
오재 8월 18일(음. 7월 1일)  
육재 8월 25일(음. 7월 8일)  
막재 9월 1일(음. 7월 15일)  
재일 매주 토요일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마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 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 의** 법왕사 766-3747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04** 깨침의 향기  
든든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살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다시 한번 정법 포교의 깃발을 올리며!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생각을 바르게 하자 · 본원스님
- 14** 용두마을  
상불경보살의 단행예배(但行禮拜) · 묘도스님
- 16** 법회이야기 I  
백중-우란분절 · 강영도
- 19** 법회이야기 II  
백고좌법회 · 강영도
- 22** 더불어 함께  
해오름전문요양원
- 28** 화보 | 법왕사의 여름
- 30** 법왕소식
- 32** 법왕게시판



# 든든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살

원공당 정무 대종사

원공당 정무 대종사는 평생 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다. 2011년 9월 29일 입적하신 정무 대종사의 거룩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정무 큰스님이 살아 생전에 하신 법문을 녹취해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요즈음 가정이 해체되면서 제사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효행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중(百中)이 있는 7월은 제사를 지내는 달입니다. 불가 특히 속가에서도 햇과일을 장만해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7월입니다.

제사는 왜 지내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쉽섭해서 지낸다’, ‘후손된 도리로 지낸다’, ‘예법(禮法)으로 지낸다’ 등 주로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보통 제사에는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화목(和睦)과 단결(團結)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 못 다 나눈 정을 나누다보면 자연스럽게 화목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후손들에게 효도교육(孝道教育)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처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제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이 자체가 후손들에게는 훌륭한 교육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선망부모(先亡父母)의 은혜(恩惠)에 보은(報恩)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입지(立志)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세를 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또는 공부를 하겠다는 큰 뜻을 세우고 고향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고향에 가서 그때의 마음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이처럼 제사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

니다.

불교에서는 여기에다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불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영가(靈駕)를 천도(遷度)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도는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고혼(孤魂)을 좋은 세상으로 보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 한 의미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불교의 영가천도는 바로 우리 조상을 위한 것입니다.

또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수(祭需)로 차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제수에는 삼채(三彩)와 삼과(三果)를 써야합니다. 삼채는 도라지, 고사리, 그리고 미나리를 말하고 삼과는 밤, 대추, 감을 말합니다.

뿌리를 쓰는 도라지는 조상을

생각하는 것이고 줄기를 쓰는 고사리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다 보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를 꼭 서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미나리는 마디마디 잘라 심어놓아도 각 마디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는 후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음식만 봐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삼과의 첫 번째는 밤입니다. 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터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그 씨앗은 썩지 않습니다. 조상님은 밤알처럼 후손을 위해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대추는 한 가지에도 수백 개씩 줄줄이 열립니다. 이는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감은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씨에서 곧바로 자란 감나무에는 제대로



된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껏 열린다는 것이 먹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열매인 ‘고욤’입니다.

씨알이 좋은 감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감나무에서 가지고 온 가지로 접을 붙여야 합니다. 이 말은 집안에서만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 큰 인물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스승님,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큰 인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현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면서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이 늘

어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가정이 해체(解體)되면서 제사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효행(孝行)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살(菩薩)이라는 것이 달리 보살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어머님들은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에게 너무 불효(不孝)를 해 그 양심의 가책으로 제사를 잘 모시려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속>

# 다시 한번 정법 포교의 깃발을 올리며!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 三寶에 歸依 하옵고, 최근 수개월 동안 小僧이 道場을 지키지 못하고 法友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 드린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 법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승은 1990년 천막 法堂을 차려 法王寺를 創建하고 부처님 正法布教에 나선 이래 23년 동안 오로지 불자들이 언제나 쉽게 찾아와 부처님을 參拜하고 信行生活을 할 수 있는 如法한 道場을 갖추기를 誓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難關이 있었지만 10



만여 불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1천평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3천평 규모의 大作佛事를 回向하였습니다.

●● 小僧은 대작 불사에 所要되는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가족

한평 사기’ ‘대작불사 후원모금’, ‘대웅전 불사’, ‘기와불사’ 등을 일으켰으며 다행히 불자 여러분의 뜨거운 聲援으로 불사는 비록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回向하여 새로운 기도공간뿐만 아니라 요양원까지 갖춘 종합복지관으로 탄생하였습니다.



●● 이렇듯 1차 불사를 끝내고 창건 이래 가건물로 이어오다 복지관 준공 이후 방치되다시피 한 옛 법당 보수를 위해 다시 한번 불사를 일으키기로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에 불자 여러분들이 또 다시 적극 호응하여 순조로이 진행되었는데 의욕이 지나쳤다고 할까, 불사를 하루 속히 회향하고 싶은 조바심에 종무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비하지 않은 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또 다시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 小僧은 불자 여러분들이 보시한 淨財를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빠짐없이 佛事에 투입하였을 뿐 아니라 하루 속히 불사를 마무리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一路邁進하던 중 뜻밖의 暗礁를 만나 2006년에 이어 올해에 다시 한번 苦草를 겪었습니다.

●● 오직 佛法弘布를 위한 도량 建立을 목표로 23년간 한눈 팔지 않고 매진해 온 小僧과 小僧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불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것은 소송

의 不敏함에서 비롯되었음을 痛感하고, 소송이 잠시나마 囹圄의 몸이 되었던 탓에 사중을 비워 불자 여러분의 참배와 기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深深한 謝過의 心情을 전합니다.

●● 앞으로 소송과 법왕사 가족 일동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법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더욱이 소송은 앞으로 여러분께 이와 같은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불보살님의 無量한 加被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56년 8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實相 드림



# 생각을 바르게 하자

본원스님 / 토굴정진중

“ 백년을 산다 해도 생멸(生滅)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하루를 사는 중에 그것을 깨달음만 못하다.

〈출요경(出曜經)〉



“인생이란 무엇인가?”

옛날 옛적에 어느 왕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신하에게 명하여 훌륭한 철학서를 구해오라고 명령한다. 신하들은 10여 년 동안 걸려 수백권 책을 수집했다. 너무 방대해서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었던 왕은 다시 명하기를 그 중에서 가장 잘된 서너권의 책을 추려오라고 한다. 신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추리고 추려 서너 권의 책을 왕에게 바쳤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왕은 병석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다.

결국 왕은 다시 그 책의 내용을 서너 줄로 요약해 달라고 했고 신하들은 왕의 뜻대로 단 한줄로 그 내용을 간추려 왔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는 것이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수천만 가지 말과 글이 있어도 그 골자를 추려보면 사실 ‘탄생·고통·죽음’의 세 가지 단어로 모아지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어머니의

배 속에서 열 달 길러지다 진통 끝에 어렵사리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는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든 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것도 잠깐이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선 유치원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

**인생은 오욕과 칠정으로 점철**  
인간의 한평생에는 질곡의 풍진과 파란(波瀾)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반목과 대립, 시비와 갈등, 우비고뇌(憂悲苦惱), 덧없는 영욕(榮辱)의 부침 속에 산다. 천석꾼은 천 가지 걱정이 있으며 만석꾼은 만 가지 걱정을 한다. 오욕(五慾)·칠정(七情)<sup>1)</sup>의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파란으로 바람 잘 날 없이 고된 풍진(風塵)에 찬 일생을 보내는 것이 인간이다.

각주 1) 오욕은 재·색·식·명·수를 말한다. 칠정은 일곱가지 감정으로 희(喜), 노(怒), 애(哀), 낙(樂), 애(愛), 오(惡), 증(憎)을 말한다.

갓난아기는 전생의 생생한 경험에서 전해지는 영적인 육감(肉感)으로 한 평생 겪게 될 고통을 미리 예감하고는 출생하자마자 울기부터 한다.

아기의 첫 울음을 두고 일부 학계에서는 ‘모태(母胎)에서 열 달 동안 안전하게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궁 밖 낫선 곳으로 밀려나면서 이질적인 세계를 접하는 순간 변화된 환경에 놀란 나머지 울게 된다’고 풀이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아기의 첫울음은 고통의 몸부림  
예부터 전해지는 현자(賢者)의 글에 ‘아생초곡이지부 일타인간만 종수(兒生初哭爾知否 一墮人間萬種愁)’라는 말이 전해온다.

이 문구는 ‘여린 새 생명이 태어나 우는 첫 울음의 의미를 아는가? 사람 몸 받아 장차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겪게 될, 만 가지 무거운 근심의 짐을 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서러움에

복받쳐 운다’는 뜻이다.

갓 태어난 아기는 유정(有情)은 업(業)이 되는, 업 따라 인연 따라 다시금 질곡의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조건이 지워진 새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난 생애에 지은 업력(業力)이 끄는 힘을 따라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울음을 터뜨리는 것뿐이다. 때문에 서러움에 겨운 울음보부터 터뜨림은 자연스러운 행위로써 억제된 불만족을 표출하는 가없는 몸짓인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로써, 아기는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에는 엄마를 찾으려고 더듬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하나의 개체가 되는 순간, 아기는 자주 손을 더듬으며 무엇인가를 쥐려고 한다. 그것은 엄마와 분리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아기가 가장 평안한 자리인 자궁 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무의식적 회귀본능

이자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피동적(被動的) 삶을 거부하고픈 애처로운 손짓이기도 하다.

인간은 과거 생에 지은 두터운 업장(業障)의 인연에 따라 또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난다. 이런 윤회의 굴레 속에서는 살고 안 살고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힘겹고 고단한 삶이 싫어도 참고 견디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처지를 아는, 때 묻지 않은 맑은 식(識)을 지닌 아기가 탄생이 좋아서 망실거리며 웃는다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다.

올바른 사고(思考)가 번뇌 소멸 하지만 답답하게도 어른들은 태어난 아기가 잘 울지 않으면 잘못된 것일까봐 불안해 하며 아기를 울리기 위해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나도록 때린다. 그렇지 않아도 또 한 생이 가져올 고난에 찬가시밭길을 예감하고 있는 아기는 더욱 설움에 복받쳐 마침내 울음을 터트린다. 이런 곡절도 모른

채 어른들은 그제서야 ‘이제 됐다’며 안도한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어 있다. 그럼 이런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사(正思)이다.

정사(正思), 정사유(正思惟)가 지닌 사전적 의미는 ‘무루(無漏, 번뇌가 다함)의 지혜로 4제(諦)의 이치를 추구, 고찰(考察)하고 관(觀)이 더욱 진취하게 함’ 이라고 하였다.

정사는 마음을 꿰는 어지러운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이다. 고(苦)의 원인과 고를 종식시키는 법, 그리고 그것을 실천 수행을 통해서 그 고(苦)로부터 벗어나는 해탈법을 통찰하여 직관(直觀)의 힘을 기르고 갖추는 것이 ‘올바른 사유(思惟)의 길,正道(正道)의 정사(正思) 임을 말하는 것이다.

무명(無明) 중생은 무지(無知)로 말미암아 법의 실상, 공(空)의 실상, 진리의 실상에 철혹 같이 캄캄하다. <계속>

# 상불경보살의 단행예배(但行禮拜)

묘도스님 / 법왕사 총무

「습득대사전(拾得大師傳)」의 미륵보살게에 이르되,

“나는 누더기 두루마기를 입고  
싱거운 밥으로 배가 부르네.  
해진 곳 기우며 추위를 막고  
만사를 인연에 따라 산다네.  
누가 나를 욕한다 해도  
나는 스스로 즐거워 하고,  
누가 나를 때린다 해도  
나는 스스로 쓰러져 잔다네.  
누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마르니,  
나는 힘을 소모하지 않고  
그 사람은 번뇌가 없다네.  
이러한 바라밀이야말로  
바로 오묘한 보배라네.  
이 소식을 바로 안다면  
도 이루지 못할까 무얼 걱정하리.”  
라 하였습니다.



이 미륵보살 계송을 가만히 읊조리다 보니 펄럭 일념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악구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인간불성을 찬탄하며 합장예배행을 멈추지 않았던 범화경에 등장하는 단행예배(但行禮拜)의 실천적 구도자인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입니다.

그 내용을 범화경 상불경보살품에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와 같이 여러 해를 두고 항상 비웃음과 욕을 들으나 성을 내지 않고 항상 이런 말을 하되 ‘당신들은 마땅히 성불하리이다.’ 이 말을 설할 때 여러 사람들이 혹은 막대기나 가와나 돌로 때리면 피해 달아나 멀리 가서 오히려 큰 소리로 말하되, ‘나는 당신들을 감히 가볍게 보지 않으니, 당신들은 다 마땅히 성불하리이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미륵보살의 계송에서 한 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인욕하심하는 수행이나, 상불경보살의 단행예배의 실천의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Message)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불성(佛性)에 예배하여, 각자 불성이 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범화오종 수행(法華五種修行 : 수·지·독송·해설·서사)으로 더욱 빛나게 하려 한 것이니, 이러한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출세하신 일대사인연에 호응(呼應)한 수행인 것이고, 이러한 뜻으로 실천하는 인간불성에 대한 예찬(禮讚)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이코패스(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식에 경종(警鐘)의 목탁소리가 될 것입니다.

# 효심(孝心)으로 조상을 천도하는 백중, 우란분절

백중(百中)이란 음력 7월 15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날이 24절기의 중심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중은 백종(百種)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이 무렵에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오므로 백 가지 씨앗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음은 같으나 한자로 백중(白腫)이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 때가 농사일이 거의 끝나는 때이므로 그동안 농사일을 하느라 더러워진 발뒤꿈치(腫)가 모처럼 하얗게(白)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중이란 절기 자체는 불교와 관련이 없지만 이 날짜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명절로 자리잡은 것은 이 날을 불교에서는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 하여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열고 백 가지 곡식과 과일을 공양 올리는 의식에서 두 이름의 절기가 합쳐져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란분절은 불가에서 부처님 탄신일, 성도일, 열반일과 함께 중요한 명절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우란분(盂蘭盆)이란 것은 고대 인도어인 범어



(梵語)인데 중국에서는 구도현(救倒懸)이라고 번역하였으니 지옥에 들어가서 매달려 있는 조상들의 혼백을 구해 보낸다는 뜻입니다.

우란분절은 목련(目蓮)이 그 어머니를 아귀도에서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고통을 구했던 사실을 적은 우란분경에 연유합니다. 우란분경에는 목련존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신통제일(神通第一)의 목련존자가 해안을 통해 지옥을 보니 생전에 갖은 악업으로 아귀지옥에 떨어진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목련존자가 가슴 아파하며 음식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올렸으나 그 음식은 어머니의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뜨거운 불길로 변해 버렸습니다.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죄업이 너무 크고 무거워 존자로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목련존자는 대성통곡하며 부처님께 달려가 어머니를 구제해 달라고 권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목련존자를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죄는 너무도 무거워 너의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만 시방에 계시는 대덕스님들의 법력을 빌면 가능할진대, 이들이 9순 안거를 끝내고 참회의를 가지는 자자일(自恣日) 즉 7월 15일에 좋은 음식과 온갖 과실을 공양하면 이 스님들의 힘으로 살아 있는 부모는 물론 7대 선망부모와 친척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백년장수하고 천상에서 쾌락을 누릴 것이다.”

또 이 날을 불교에서는 ‘백중(白衆)’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음력 4월 15일 결제(結制)에 들어가 3개월 동안 참선공부를 하고 음력 7월 15일 이날 해제(解制)하여 자기 허물을 대중스님께 고백하고 죄과를 뉘우치고 또 자기가 의심하던 것을 대중에게 말하여 해결한다는

행사로 대중에게 사된다하여 백중(白衆)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던 행사로 인도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비가 많이 오고 날도 무더워 스님들이 탁발하거나 가르침을 펴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기간 동안에는 고요히 홀로 암자와 같은 곳에서 수행을 하도록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것을 안거(安居)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거가 끝나는 날에는 절에서 제

사를 올려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는데 그날이 바로 백중일입니다.

안거를 끝내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공양하여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지옥과 같은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이나 인간 세계와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란분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절이든 음력 7월 15일에 회향하도록 백중 영가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선망 조상과 부모 영가를 위해 정성으로 재를 올리면 영가들은 왕생극락하고 다음 생에 필히 불도를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 설법회의 백미, 백고좌법회(百高座法會)

법왕사에서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3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한다. 1백일 동안 1백인의 고승 대덕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는 호국불교의 근본경전인 인왕반야경에 의거한 법회로 이미 신라 시대에 성행했던 법회 방식이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조에 들어서자 억불정책에 의해 그 맥이 끊어졌다가 지난 94년 법왕사에서 처음으로 백고좌법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법왕사에서는 매년 빠짐없이 이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데 간혹 연 2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올해로 벌써 23회째를 맞는 백고좌 법회에는 매년 300여명의 불자들이 법당을 가득 채워 부처님 정법의 길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법회 봉행을 앞두고 백고좌법회의 의미와 공덕에 대해서 알아본다. 편집자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큰스님을 초청해 법석을 여는 것이다. 백고좌법회의 경전상 근거는 불설인왕바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이다.

인왕반야경에 보면 '부처가 대왕에 고하시되 내가 지금 국토를 수호하는 법의 이용을 바르게 설명할 것이니, 너희들은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을 지켜라. 국토가 전란으로 파괴되고 외적이 쳐들어와 약탈하며 과국이 될 때, 백개의 불상, 백개의 보살상, 백개의 나한상, 백명의 비구중, 사대중, 칠중을 청하고 백명의 법사(法師)를 청하여 듣고 반야바라밀을 강하게 하되 백개의 사자고좌(獅子高座) 앞에 많은 등을 켜고 백개의 향을 사르며 백종색화(百種



色花)로 삼보(三寶)에 공양하고 세 가지 옷과 물건으로 스님들을 공양하되 소반 중식(小飯中食)도 거둬하라.(仁王般若波羅密經 下, 護國品 5)

이를 통해서 볼 때, 백고좌법회는 기본적으로 내란과 외환을 막고 나라 안팎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베푸는 법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회를 베푸는 하나의 의미는 국왕이 부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지키고 평안하게 하는 존엄한 존재임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즉, 백고좌법회는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

나인 '호국불교(護國佛敎)'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회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백고좌법회가 처음 개설된 것은 신라 진흥왕 12년(551) 때였다. 이 때 진흥왕은 고구려에서 귀화한 혜량법사(惠亮法師)를 승통(僧統)으로 삼고 백좌법회와 팔관의 법회를 처음 마련하였다.

그 이후 백고좌법회는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었다. 먼저 진평왕 35년(613)에는 수나라 사신 왕세예(王世儀)가 왔을 때 황룡사(皇龍寺)에서 백고좌법회를 베풀어 원광(圓光)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신라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때였다. 그래서 진평왕은 608년에 원광(圓光)으로 하여금 결사표(乞師表)를 쓰게 하여 수나라에

게 고구려를 칠 것을 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수에 요청한 군사적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왕세의가 신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호국법회인 백고좌법회를 베풀고 결사표를 쓴 장본인인 원광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케 했다는 것은, 수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라의 주도면밀한 의도를 엿보게 해준다.

백고좌법회를 베풀 곳인 호국대찰인 황룡사였다는 점은, 국란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베풀다는 본 법회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후의 백고좌법회 역시 국가에 어려움이 닥칠 때 예외없이 황룡사에서 베풀어지고 있다.

이러한 백고좌법회는 고려시대에도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행사로써 명맥을 이어갔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백고좌법회는 그 명맥이 끊어져 500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 이후에도 백고좌법회는 관심 밖이었는데 90년대에 들어 포교에 열정적인 스님들에 의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법왕시는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22회나 백고좌법회를 개최해 법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



다. 법왕사에서는 때로는 봄·가을, 혹은 주야로 두 차례씩 열기도 했으며 불교의 주요 경전인 화엄경(華嚴經)과 법화경(法華經)을 주제로, 혹은 전반에 걸쳐 열기도 했다. 올해 23회째를 맞는 백고좌법회는 특히 범람이 높은 스님들로만 법사를 구성, 불교 전반에 관한 폭넓은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전국의 고승대덕 스님 100분을 초청해 스님들이 각자 평생 공부하고 수행해 온 분야에서 최고 정수만을 설법하도록 법회를 구성했다. 따라서 불교 경전 전반을 일컫는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을 주제로 폭넓은 설법회를 꾸밀 예정이다.

# 아름다운 노후를 가꾸는 해오름전문요양원

대구 수성구 과동 법왕사 경내에 위치한 해오름전문요양원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소외된 어르신과 치매, 중풍 등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사랑으로 섬기는 전문요양원이다.

약 500여평의 규모에 아늑한 시설로 어르신들을 보살펴 줄 해오름전문요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서비스와 케어서비스로 이분화해 어르신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시면서 건강도 지키고 행복한 노후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이 혈압,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는



“ 편찮은 어르신들을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

원장 지윤 스님



등 철저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전문의들이 주기적으로 내과진료를 담당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로 병세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물리치료와 원예치료, 재활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건강체조, 발마사지, 식사수발 서비스, 이미용, 종이접기, 집단활동, 노래교실 등 활기차고 평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법왕사 문화회관의 부설기관인 해오름전문요양은 부처님의 가피 아래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한 손길과 밝은 미소로 돌봐드린다는 것이다.

한편 해오름전문요양원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후원해 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욕, 청소, 이·미용, 보건의료지원, 프로그램 지원, 행사지원을 원하는 사람이나 말벗 등이 될 후원자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 도움 주고싶은 분은 053)766-5767로 연락주십시오.

## 요양원입소 안내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입소정원** 약 50명

**입소절차** 무료대상자 /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 판정 → 입소상담 → 동 주민센터 신청 → 시청 서류심사 → 요양원 입소통보 → 보호자 입소통보 → 요양원 입소

**일반 이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 판정 → 요양원 입소상담 → 입소신청 → 보호자 입소통보 → 요양원 입소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소견서, 처방전
- 건강진단서 1부  
(결핵, B형 간염, 매독 관련)
- 수급자 증명서(수급자에 한함)

**이용료**

- 무료이용자 : 무료
- 경감이용자 : 10% 본인부담(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이용자 : 단기보호 15% 본인부담  
노인공동생활가정 20% 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 제외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09401-8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종이지저귀, 의약품, 세제류, 주·부식품, 생활용품 등  
정기후원 정기적인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CMS 신청도 가능



## INTERVIEW..

### 해오름전문요양원 사무국장 이동식



**Q. 현재 몇 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계십니까?** 해오름요양원은 금년 3월에 개원하여 7월 현재 12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Q. 몇 분의 전문요원이 요양원 운영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무행정엔 원장님 이하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팀장 1명, 영양보호사 5명, 조리원 1명 등 모두 10명의 근무자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총 수용가능 어르신 25명을 보살피는데 아주 넉넉하다고 하겠습니다.

**Q. 해오름요양원이 다른 요양원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도심지를 벗어나 앞산을 끼고 있어서 공기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왕사 경내에 넓은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요양원의 크기가 특별합니다. 신설 요양기관으로서 어르신의 방과 복도 및 거실이 25인 수용기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게 설계되어 직원과 어르신이 동시에 넉넉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입원하고 싶은 어르신이나 자녀들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장기요양 1~3등급(시설급여) 인정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등급이 없으시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저희 해오름요양원에서 등급신청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니 지체없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요양원 운영과 관련해서 법왕사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삼보에 귀의하옵고, 해오름요양원에는 주지 실상 스님과 불자님들의 노인복지에 관한 의지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동안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해오름요양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해오름요양원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불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을 부처님처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할 결심이니 불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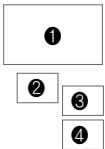
❶

❷

❸

- ❶ 요양원 중간에 설치된 휴게실. 시원한 전망이 일품이다.
- ❷ 법왕사 종합복지관 2층에 마련되어 있는 해오름요양원 입구
- ❸ 해오름요양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직원 일동





- ① 요양원의 드넓은 내부 모습. 모두 25명을 모실 수 있다.
- ②③④ 1인 혹은 2·3인이 지내기에 쾌적하고 넉넉한 1인실, 2인실, 3인실



## 법왕사의 여름

법왕사 경내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평소 주지스님의 손길이 미친 곳곳에 화초가 만발하여 온갖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새로 단장하고 달라진 도량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봅니다.<편집자>



- 1 법왕사 경내에는 참나리가 한창이다. 담장을 따라서, 웅두관음 아래에 핀 참나리가 도량을 장엄하고 있다.
- 2 산신각 앞에 조성된 잔디광장. 주지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장소이다.
- 3 가장 먼저 내방객을 맞이하는 아미타불
- 4 법왕사 입구를 지키는 평화상





5



6



7



8



9

- 5 위에서 자비로운 눈길로 중생을 굽어보는 용두관음
- 6 법당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석등. 불법의 등불을 밝히는 상징이다.
- 7 법당 뒤편에 조성한 법왕농장. 농장에는 고추와 포도, 오이, 가지 등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 8 법왕사와 함께 23년 동안 낙락장승으로 자란 소나무가 늘 푸르고 활기찬 법왕사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다.
- 9 복지관 앞마당 연못에 백련 한 송이가 피어 도량을 연화장 세계로 장엄하고 있다.

# 법왕사 소식

## 제23회 백고좌법회 9월 7일 입재



제23회 백고좌법회가 오는 9월 7일 입재하여 12월 15일까지 100일간 계속됩니다. 이번 백고좌법회에서는 불교경전 전반을 아우르는 '경율론 삼장 대법회'로 전국의 고승대덕 100여분을 모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간 법회를 열게 됩니다. 백고좌법회는 신라시대에 처음 시작되어 고려시대까지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사라진 것을 법왕사에서 다시 복원하여 올해로 23회째 봉행하고 있습니다.

##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개최



오는 9월 7일 제23회 백고좌법회를 앞두고 그 전야인 9월 6일 오후 7시에 법왕사 복지관 3층 큰 법당에서 국민가수 현철과 인기가요 '정정정'의 한영주 등 인기가수 초청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불자 국회의원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초청, 토크쇼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시민 참선방 개원, 10여명 정진중



옛 법당 1층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참선방을 개설하였습니다. 매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가량 자유롭게 참선할 수 있는 공간인 참선방에는 현재 10여분의 불자들이 매일 정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참선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수행해 볼만한 수행법으로 많은 불자님들의 이용바랍니다.

## 우란분절, 백중 49재 봉행중



지난 7월 14일 입재한 백중 영가천도 49재가 지난 28일 제삼재를 봉행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60여분의 불자님들이 동참하고 있는 백중 천도재는 매주 토요일에 봉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 회향 예정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조상과 선망부모님의 영가를 천도하여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불보살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 ● 봉정암 순례법회 2차에 걸쳐 봉행



지난 6월 29일 1차로 40여명의 법우들이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한데 이어 27일에는 2차 30여명의 법우가 봉정암을 참배하였습니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도량이기도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생전에 한번씩 참배하고 싶어 하는 기도처로 법왕사에서는 매년 두세 차례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 ● 수능 100일 기도 입재



2013학년도 대입수능 100일 기도가 8월 1일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봉행합니다. 수험생을 둔 불자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정성과 불보살님의 가피로 자녀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석불전 새단장 후 문 열어



23년전 법왕사 창건 당시 삼화식품 김종렬 거사님께서 기증하신 석불을 모신 석불전이 옛 법당 안쪽에 새로이 꾸며졌습니다. 법왕사와 역사를 같이하는 석불은 향마촉지인을 한 석가모니 불상으로 조형미가 뛰어나며 조각기법도 우수해 유래를 알면 충분히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문화재급 불상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참배하시고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 ● 감로다실 문 열어



옛 법당 입구에 10여평의 공간을 따로 내어서 간단하게 차를 끓일 수 있는 도구와 원목 다탁 3개를 갖춘 다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불공을 드리어 오시거나, 참배를 하러 오신 불자님들께서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법우들과 담소를 나누고 수행상담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경내에 소나무 16그루 식재



법왕사 종합복지관 둘레에 높이 10m 이상 되는 금강송 16 그루를 새로이 식재하여 도량의 경관을 더욱 여법하게 조성하였습니다. 20년 생 안팎의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이면서 쪽 끈게 자라는 금강송으로 거침없이 뻗어 나가는 법왕사의 기세를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앞으로 100년 200년 자라면 도량을 장엄하는 낙락장송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옛 법당 새로이 단장



법왕사는 최근 복지관 불사를 마치고 옛 법당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옛 법당은 비록 가건물이었지만 지난 20여년간 많은 불자들의 기도처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 새법우 명단

수성구 배일한 오필분 박필순 남태능  
 박경자 고은희 김미경 김미희  
 허미화 이현주 김지연 손주희  
 하재근 김수만 박찬성  
 달서구 김영자 김미경 전원자 전선자  
 서상록  
 북 구 김경옥 송종대  
 중 구 이용암 최은상  
 기 타 조수호 박수정

## 이 달에 범종불사 모신 분

908 송일등 909 진은진 910 김의환  
 988 오창혁 989 문소연

## 새롭게 산신인등 모신 분

372 최진석 418 최선웅 65 차장근  
 416 최서원성 424 최윤석 375 차주영  
 376 차민성 382 최은숙 446 최지민  
 472 흥승규 473 김연호

## 본 법당 인등 모신 분

696 김치회 697 엄세비 698 김태균  
 699 엄갑순

##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亡영양유인 남氏순희 영가(하봉철 복위)  
 亡진주후인 하공진웅 영가(하진영 복위)  
 亡전주유인 이氏정숙 영가(함상시 복위)  
 亡성산후인 여공상수 영가(여택동 복위)  
 亡성산후인 이공장수 영가(이창수 복위)  
 亡평산후인 신소해영 영가(신인철 복위)  
 亡밀양유인 박氏정순 영가(신인철 복위)  
 亡여산후인 송공정선 영가(송영식 복위)



# 법왕사 게시판

## 원불봉안 하신 분

- |                 |                 |
|-----------------|-----------------|
| 3274 박석현(석가모니불) | 3275 박세훈(석가모니불) |
| 3276 김종희(지장보살)  | 3277 손태근(지장보살)  |
| 3278 유복균(지장보살)  | 3279 곽승열(지장보살)  |
| 3280 심향숙(관세음보살) | 3281 백승목(관세음보살) |
| 3282 백진영(지장보살)  | 3283 노상훈(지장보살)  |
| 3284 양수한(석가모니불) | 3285 노금재(지장보살)  |
| 3286 노희주(지장보살)  | 3287 이은영(아미타불)  |
| 3288 안상현(지장보살)  | 3289 신영복(관세음보살) |
| 3290 윤재웅(지장보살)  | 3291 신광옥(관세음보살) |
| 3292 이현숙(관세음보살) | 3293 박인혁(관세음보살) |
| 3294 卍박병문(아미타불) | 3295 이지옥(관세음보살) |
| 3296 신숙(아미타불)   | 3297 김준영(관세음보살) |
| 3298 정수균(석가모니불) | 3299 구은숙(관세음보살) |
| 3300 박지영(지장보살)  | 3301 신나라(지장보살)  |
| 3302 이도희(대일여래불) | 3303 卍박은미(지장보살) |
| 3304 卍정수정(지장보살) | 3305 卍이민정(지장보살) |
| 3306 이도주(관세음보살) | 3307 이기영(관세음보살) |
| 3308 반재민(관세음보살) | 3309 반연주(관세음보살) |
| 3310 신나라(지장보살)  | 3311 卍김명희(지장보살) |
| 3312 卍오우식(지장보살) | 3313 이건민(문수보살)  |

## 수능기도 축원하신 분(5월~7월 접수분)

하재영 권준아 박창석 전주희 김민수 김은지

## CMS접수하신 분(5/26~7/9)

원 불 심향숙 3만원 양수한 4만원  
 이현숙 4만원 백미경 1만원  
 백동근 1만원 백미숙 1만원  
 이현주 3만원  
 한평불사 백춘자 5만원

## 감사드립니다

◎ 여택동 법우님의 卍염부후인 성산 여공상수 영가님의 막재를 맞아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지장경 100권을 법공양하셨습니다.

◎ 백중 2재이며 중복인 7월 28일 법왕사 선원장이신 자운스님께서 삼복 무더위에 지친 사내 대중스님과 신도님들을 위해 공국수 대중공양을 내셨습니다.

◎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2박3일간 30여분의 법우님들이 부처님의 뇌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인 설악산 봉정암으로 2차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 돼지 지금통 회향하신 분 박성태

◎ 콩나물 공양 광창영

◎ 떡 공양 양영갑 양혜진 서미경 박동근  
 박종성 강석운 권지현 여보리자

◎ 물품 공양(물티슈, 하키스) 양문갑

◎ 백중 입재

- 과일 공양 올리신 분

김하균 김태환 권혁만 이종량 이병희 이진희

- 떡 공양 올리신 분

卍최규석 영가 이원석 이승재 심규암 권영숙 심혜정 심소미 김의환 이영애 이종순 김상연

◎ 백중 초재

- 과일공양 설판재자

이정상 전옥남(과일 9박스)  
 권혁만 이미향(바나나 1박스)

- 떡 공양 올리신 분

신구자 백상현 감로연 이세정 류윤만  
 홍승규 곽중란 황미선

- 설판기도 올리신 분

최대일(전 ECA외국어학원 원장) 200만원  
 이정상(세광하이테크) 200만원  
 법왕사 선우회 회원 일동 100만원

# 법왕사 게시판

## ● 축하드립니다

- ◎ 김주본 운불련회장님의 장녀 김영화 양의 결혼식이 6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김성권, 정영숙 법우님의 장남 김동일 군의 결혼식이 6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김병조 법우님의 공무원 시험합격을 축하드립니다.
- ◎ 한선동 법우님의 손녀 한다원, 한다면 쌍둥이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 백월순, 최은정, 김영훈, 이동학 법우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 봉사 도움 주신 분

이태순 10만원	김순자 20만원	김임태 10만원
관음회 20만원	김종숙 5만원	김분용 5만원
이정례 5만원	박보현행 5만원	권마하심 10만원
이재학 5만원	주정남 10만원	혜영심 10만원
야생화실 5만원	김은주 5만원	권경애 10만원
최옥남 50만원	박동근 50만원	장백련화 108만원
백대행심 10만원	최태희 3만원	이공한 10만원
주복귀 10만원	윤숙원 10만원	김경희 20만원
조용호 20만원	진정애 20만원	이종량 10만원
전재술 10만원	신장희 30만원	권오성 30만원
사공순옥 10만원	유명련행 10만원	이무구행 10만원
이임숙 50만원	주진불심 10만원	심혜정 30만원
이지송 10만원	황미선 50만원	최태희 20만원
황정숙 5만원	정후남 5만원	장영숙 10만원
합창단 30만원	정무시 20만원	지장희 20만원
일심회 10만원	구실상화 20만원	백법성행 10만원
이세정 10만원	오견덕화 5만원	장백련화 100만원
최정심행 5만원	조감로원 10만원	김창월 2만원
박문수성 2만원	문백련화 1만원	서금자 1만원
이점선 1만원	이여범화 50만원	자비회 50만원
함지훈 35만원	이재왕 100만원	박경란 30만원
박분남 20만원		

## ● 왕생극락하옵소서

- ◎ 정원일 법우님의 언엄부후인 연일 정공준식 영가님의 막제가 6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홍승근 법우님의 언엄부후인 부림 홍공연진 영가님의 막제가 6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김경래 법우님의 언자모유인 반남 박씨봉선 영가님의 막제가 6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정운오 법우님의 언엄부후인 나주 정공해길 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 1일에 있었습니다.
- ◎ 장철영 법우님의 동생후인 안동 장공철호 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이창수 법우님의 언형님후인 성산 이공장수 영가님의 초제가 7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김영애 법우님의 언자모유인 달성 서씨갑임 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여택동 법우님의 언엄부후인 성산 여공상수 영가님의 막제가 7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엄준원 법우님의 언엄부후인 영월 엄공진섭 영가님의 초제가 7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함형주 법우님의 언자모유인 경주 김씨순애 영가님, 동생후인 강릉 함공연식 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 12일,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 유혜정 법우님의 언엄부후인 모금도 유공영호 영가님의 기제사가 7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하진영 법우님의 언자모유인 영양 남씨순희 영가님의 막제가 7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함상시 법우님의 언실인유인 전주 이씨정숙 영가님의 막제가 7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신천동로 상동교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

수성못

수성중학교

파동초등학교

용두교

수성못오거리

송원아파트

우회도로

공사중

##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  
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오거리**  
**→용두교→법왕사**로 이용을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 제23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백고좌대법회(百高座大法會)

법왕사에서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제23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 ✿ 입 재 2556년(2012년) 9월 7일
- ✿ 회 향 2556년(2012년) 12월 15일
- ✿ 시 간 매일 오전 11시 30분
- ✿ 장 소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1일차  
9월 7일

도문스님  
조계종 율포의원



●99일차  
12월 14일

종진스님  
해인사 율주

- ※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상 주지스님께서 108배 2회를 집전합니다.
-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천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 제23회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오는 9월 7일 제23회 백고좌법회를 앞두고 그 전야인 9월 6일 오후 7시에 법왕사 복지관 3층 큰법당에서 국민가수 현철과 인기가요 '정정정'의 한영주 등 인기가수 초청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불자 국회의원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초청, 토크쇼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 시 불기 2556년(2012년) 9월 6일 오후 7시
- 장 소 법왕사 복지관 3층 큰법당
- 출 연 국민가수 현철, '정정정'의 한영주,  
특별출연 주호영(국회의원)
- 사 회 이수찬(대구마하이주민센터 소장)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T. (053)766-3747 F. (053)767-6095